

##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

조 선 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목 차 >

- |               |                |
|---------------|----------------|
| 1. 추진배경 및 목적  | 5. 워크숍 주요 사진자료 |
| 2. 참석자 소개     | 6. 마치면서        |
| 3. 워크숍 주요 내용  |                |
| 4. 워크숍 결과 강평회 | <참고문헌>         |

### 1. 추진배경 및 목적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2006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통합함으로써 규장각 소장 자료의 보존·관리·제공은 물론 역사, 문학, 철학, 예술, 과학기술 등 여러 영역의 한국학 연구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학술세미나와 콜로키움(colloquium), 집담회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학자들을 초청하는 등 학술연구와 교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37개국 242개 기관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한 결과 해외 한인사서는 12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sup>48)</sup> 그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 사서가 약 30여명으로 한국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미국 의회도서관과 컬럼비아, 코넬, 듀크, 프린스턴, 토론토 대학 등 북미 지역의 우수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기 수집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간된 한국학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학의 불모지인 해외에서 한국학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이러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한 국내·외 한국학 사서들의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국내 사서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

4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연구소 편(2009.7).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사서. 「해외 한국학 동향 보고서」, 제1호, p.133

하기 위해 2009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 2. 참석자 소개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에는 모두 18명의 해외 한국학 사서가 참여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정현(Kim, Joy) 사서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서관에 24년간 근무하면서 1,000여권에 불과하던 한국학 도서를 8만권으로 확충하였으며, 한국인 최초로 북미지역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sup>49)</sup>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0년 3월 취임할 예정이다. 북미지역 도서관의 동아시아 관련 서적 소장비율을 알아보면 중국학 60%, 일본학 34%에 비해 한국학은 6% 정도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의 활동영역은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은 주로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맡아 왔었다.

김하나 사서는 2003년부터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에 근무하면서 북미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한국자료분과위원회(CKM)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하나 사서는 2008년 미 의회도서관이 주제전거(典據) 협력프로그램(SACO) 편집회의를 열어 'Tok Island(Korea)'로 되어 있는 주제명표(특정주제에 대한 표제로 사용되는 단어나 어구)를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석)'로 변경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워싱턴 주미대사관 등에 알리는 한편 미 의회도서관에도 주제명 변경 채택을 보류해 달라는 공식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미 의회도서관으로부터 미국지명위원회나 국제지명관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제어 변경을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회도서관의 주제어 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독도(주제어 번호 151)가 리앙쿠르 암석이라는 주제어로 바뀌는 것보다 상위주제어가 '한국의 섬'이 아니라 '일본해의 섬들(주제어 번호 550)'로 바뀌게 되어 독도가 일본해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군도로 여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영기 사서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19년째 사서로 근무하면서 한국학 도서들의 분류규칙을 정하는 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국학 도서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전문사서는 약 20여명인데, 이들은 1990년대 소장 도서의 분류 규칙에서 '다케시마'(Takeshima)로 되어 있

49) 동아시아협의회(CEAL)는 아시아연구협회(AAS : Association for Asia Studies)의 위원회로서 동아시아 도서관의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기 위한 교수급 사서의 포럼을 제공하고, 동아시아 도서관자원·서지통정·접근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조직하며, 동아시아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서관간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는 주제어를 '독도'(Tok island)로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1억 8천만 권에 이르며, 한국학 관련 도서만도 24만권 수준이라고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 사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은퇴 연령이 따로 없는 사실상의 종신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재용 사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2003년 5월부터 근무하면서 고문헌의 목록 정리사업 및 해외에서 출판된 한국학 자료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 내 한국학 자료의 소장 규모와 관련해 버클리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은 하버드대 옌칭 도서관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47년에 설립된 동아시아 도서관은 2007년 동아시아 전용 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한국 관련자료 10만 책을 비롯해 중국 49만 책, 일본 41만 책 등 100만권의 동아시아 자료를 갖추고 있다. 한국관련 자료는 1,500여 책의 아사미문고 등 희귀도서와 남북한 관련 각종서적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 외에도 Columbia University의 신희숙 사서, 박재용 사서, Cornell University의 김성옥 사서, Duke University의 구미리 사서, Library of Congress의 김효정 사서, 윤정자 사서, 이영심 사서, Monash University의 김정심 사서, Princeton University의 이형배 사서, Stanford University의 전경미 사서, University of Hawaii at Monoa의 양윤림 사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이선윤 사서,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이현경 사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김헬렌 사서 등이 참석하였다. (붙임1 해외사서 참석자 명단 참조)

### 3. 워크숍 주요내용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편성하였다. 먼저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학의 불모지인 해외에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철학, 종교 등 한국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해외 사서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연을 2일간의 일정으로 편성하였다. 이종묵 교수의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박성창 교수의 ‘한국 근현대문학 특강’, 정근식 교수의 ‘식민지 검열연구와 자료’, 남동신 교수의 ‘한국 철학과 종교’, 문중양 교수의 ‘한국 문화와 과학’, 박태균 교수의 ‘현대사와 국제관계’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한국학 사서들과 주제전문사서 제도에 대한 사례발표 및 한국학 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국내의 문헌정보학 전공학생과 예비 사서들을 대상으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북미지역의 대학도서관을 소개함으로써 북미지역 진출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2일간의 일정으로 편성하였다. 이영기 사서의 ‘미의회도서관의 로마자표기법’ 발표, 전경미·홍순영 사서의 ‘주제전문사서제도와 한국학사서

양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홍충란 사서·황재영 사서의 패널 토의가 있었고, 최정태 교수의 '도서관을 다시 본다', 이형배 사서·박지영 사서의 '북미지역 대학도서관 소개', 장재용 사서·김하나 사서의 '한국학 전자자료 이용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한국학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국내 한국학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과 KERIS의 견학으로 편성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하고 있어 의미 있는 관람이 되었고, KERIS는 기관의 소개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해외 한국학 지원 및 육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중식시간을 활용하여 일정에 편성하고, 규장각은 조선국왕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전시회와 수장고 관람을 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각 자료실투어 후 학술정보교류 등 해외 도서관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직원들이 강연자의 동의를 얻어 강연 내용을 VOD로 촬영 및 편집 하였는데, 이 내용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학술행사'(www://event.snu.ac.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현재 VOD로 서비스되고 있는 강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 이종묵 교수 (한국한문학)

우리나라에서 고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책의 문화사에 대해 강연함. 이번 워크숍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라는 도록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헌자료를 글과 그림으로 보이면서 책의 문화사를 정리하고 있음. 제1부 문헌의 생산과 유통, 제2부 지식의 정리와 소통, 제3부 규장각의 역사와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이 도록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의 문화사를 알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도록으로 해외 한국학 사서들에게 제공함.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의 도서관사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강연 자료 부록으로 '한국의 고대 도서관사 근대 공공도서관사'라는 논문이 실렸음.

#### ■ 식민지 검열연구와 자료 / 정근식 교수 (사회사)

식민지 시대에는 합법적으로 출판된 신문, 잡지, 문학텍스트, 영화, 사진, 미술, 음반, 연극 등 모든 문자매체, 영상매체 등이 검열대상이 되었음. 따라서 엄격한 검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주 독특한 자료가 발생(예를 들면, 詩의 경우 정본이 없고 여러 버전의 詩가 있을 수 있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판물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과 동떨어진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됨. 따라서 일제시기 자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출판물에 '依한' 연구에서 출판물에 '對한' 연구로 옮겨가야만 함. 식민지 검열 연구는 한국, 대만, 만주,

일본 등 동아시아 식민지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에서 동아시아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학 사서들이 20세기 자료를 제대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 주제전문 서비스 : 현황과 과제 / 홍순영 사서 (서울대), 지정패널 / 홍충란 사서 (연세대), 황재영 사서 (국방과학연구소)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등 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법학 주제전문사서 수요발생 등으로 인해 2005년부터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이 핵심 이슈로 재등장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순천대, 영남대, 경상대, 전남대, 부산대 등에서 주제전문서비스 신설 및 전담 인력 집중 배치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주제전문서비스 내용은 교수방문/홍보마케팅, 장서개발, 이용교육, 연구지원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서울대 연구지원서비스 사례로 교수 연구 프로젝트 지원, 강의용 Reading List 제공, 공과대 등 연구지원 사례, 협력형 디지털 참고서비스 제공 등을 소개하고 있음. 지정패널로 선정된 연세대 홍충란 사서와 국방과학연구소 황재영 사서의 패널 토의가 있었음.

#### ■ 도서관을 다시 본다 / 최정태 교수 (부산대)

일찍부터 선진국의 도서관은 지식의 저장고로서, 정보를 나누는 사랑방으로서, 그들의 친숙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부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다가 2004년 정년퇴직한 강연자는 세계 각지 도서관의 희귀한 책들과 시설물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안과 밖을 사진에 담아 그 속에 얹힌 이야기를 모아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날 강연에서는 하버드대학도서관, 하이델베르크대학도서관, 옥스퍼드대학도서관, 케임브리지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풀어 놓았음. 동서문명의 십자로였던 곳에 자리 잡은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옛 문설주 위에 붙여 놓았다는 ‘영혼의 요양소’라는 간판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도서관이 ‘지식의 저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요양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해외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 ■ 미국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 / 이형배 사서 (프린스턴 대학)

예비사서들의 유학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 학위의 종류와 분야, 복수학위과정, ALA 인증 및 인증대학 분포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이 발표에는 국내 문헌정보학과 및 현장 사서들이 40여명 이상 참석하였음. 유학준비에 필요한 입학자격, 수업준비, 대학의 특성, 학교선택, 등록금 및 생활비 비교, 장학금, 인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미국 내 문헌정보학을 전

공하는 대학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음. 입학 준비단계에서 Statement of Purpose를 작성할 때에는 지원하는 학생이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없는 다양한 back ground를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장점을 살려서 기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유학 준비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발표와 토론에 필요한 영어글쓰기인데, 영문법에 맞는 글쓰기가 아니라 Academic Writing에 대한 연습이 필요함.

#### ■ Working in academic libraries in Norty America / 박지영 사서 (콜롬비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형배 사서의 발표에 이어 국내 예비사서 또는 현직 사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의 도서관 취업을 위한 Internship, Job Search, Interview 및 Working as a Junior Librarian 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 Internship에는 대학원 학과 과목으로서의 필수과정으로서의 Library School Internship과 ALA, ARL, CEAL 등 Professional Association Internship이 있음. Job Search는 자신에 맞는 분야의 선정이 중요하며, ALA 등 Job Search Site를 book mark하여 두고 수시로 접근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함. Interview는 Job posting을 토대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력서는 이 Job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작성해야 함.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면 1년 단기취업비자가 나오고 sponsorship을 마치면 6년 취업비자가 나오는데 사서들에게는 잘 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 4. 워크숍 결과 강평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 워크숍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이후 개최되는 사서워크숍에 참고하고자 해외 한국학 사서들과 강평회 시간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의견내용이 개진되었다.

#### ■ 행사계획 및 진행

처음으로 개최하는 워크숍임에도 신속·정확한 워크숍 일정 안내 및 순조로운 진행, 그리고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해외의 사서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와 아쉬운 것은 워크숍 행사일정 안내 시일의 촉박으로 해외사서의 소속기관에서 참가절차 및 방법 등에 애로 사항이 있었으며, 식사 장소의 혼잡 및 메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음

#### ■ 워크숍 프로그램

한국학 강의 및 주제발표 등 행사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학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에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와 아쉬운 것은 규장각 소개와 한국학 강의 및 실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과 워크숍 전체일정을 국내 한국학 사서들과 공동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 해외 한국학 사서 요청사항

간행자료 배부방식(회원제)이 규장각 자료의 해외 소개 및 연구에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간행자료는 예전과 같이 무상으로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정보교환 등 국내와 외국의 사서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2회 행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함.

#### 5. 워크숍 주요 사진자료



【사진 1】 워크숍 참가자 기념촬영



【사진 2】 한국학 강연 수강 모습



【사진 3】 해외 한국학사서 사례발표 및 공개 토론



【사진 4】 기관 방문 (KERIS)

## 6. 마치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해외 한국학 사서들은 한국학의 불모지인 해외의 주요한 학술연구 기관에 근무하면서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한국학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류 규칙의 제정을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에서 한국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서들이 한국학의 중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함께 만나 한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내·외 한국학 연구발전에 대한 고견을 토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한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은 그 어느 학술대회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에도 해외 한국학 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류재단은 공동으로 해외 한국학 사서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한국학사서 글로벌네트워크(INKSLIB :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를 구축하여 각국 한국학사서와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한 국내 한국학관련 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실적이나 공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역할 분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협력해 나갈 때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는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한국학에 관한 전문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한 해외 한국학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국내 사서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해외 사서 참석자명단

No	Name	Institution
1	Shin, Hee-sook	Columbia University
2	Park, Jee-Young	Columbia University
3	Kim, Sung Ok	Cornell University
4	Ku, Miree	Duke University
5	Lee, Young-ki	Library of Congress
6	Kim, Elaine Hyo-jeong	Library of Congress
7	Yoon, Jungja P.	Library of Congress
8	Leigh, Youngsim	Library of Congress
9	Kim, Jung-Sim	Monash University
10	Lee, Hyoungbae	Princeton University
11	Chun, Kyungmi	Stanford University
12	Chang, Jaeyo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3	Yang, Jude Yoon Lim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4	Kim, Jo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5	Lee, Sun-yo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6	Kim, Hana	University of Toronto
17	Yi, Hyokyoung	University of Washington
18	Kim, Hele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붙임2】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 일정표

일시	내 용	강 연 자	장 소
8월 24일(월)			사회 : 이종묵
09:20-09:30	개회식	김영식 원장	회의실
	축사	윤희원 대외협력본부장	
09:30-11:30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이종묵 교수(한국한문학)	회의실
11:30-13:30	중식 및 휴식	국제교류재단 주관	교수회관 3회의실
13:30-15:30	한국 문학	박성창 교수(한국현대문학)	회의실
15:30-17:30	식민지 검열연구와 자료	정근식 교수(사회사)	회의실
18:00-20:00	석식		자하연 양식부
8월 25일(화)			사회 : 이종묵
09:00-11:00	한국 철학과 종교	남동신 교수(한국불교사)	회의실
11:00-11:40	규장각 견학		
11:40-13:00	중식 및 휴식		자하연 양식부
13:00-15:00	한국 문화와 과학	문중양 교수(한국사)	회의실
15:00-17:00	현대사와 국제관계	박태균 교수(한국사)	회의실
18:00-20:00	석식		감나무집
8월 26일(수)			사회 : 홍구표
08:00-12:00	미의회도서관 로마자표기법	Elaine Hyojeong Kim, 이영기(미의회도서관)	회의실
12:00-13:00	중식		자하연 양식부
13:20-14:20	서울대 중앙도서관 견학		
14:30-16:30	주제전문사서 제도와 한국학사 서 양성	전경미(스탠포드대), 홍순영(서울대), 지정패널 홍충란(연세대), 황재영(국방과학연구소)	회의실
16:30-17:30	북미지역의 도서관	최정태 교수(부산대)	회의실
18:00-20:00	석식		두레미담
8월 27일(목)			사회 : 홍구표
09:00-12:00	제2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심포지엄 참관		강당
12:00-14:00	중식 및 휴식	규장각국제한국학센터주관	자하연 양식부
14:00-16:00	북미지역 대학도서관 소개	박지영(콜롬비아 대학) 이형배(프린스턴 대학)	강당
16:00-17:00	한국학 전자자료 이용관련 토론	김하나(토론토 대학) 장재용(버클리 대학)	회의실
18:00-20:00	환영만찬(국제심포지엄)	규장각국제한국학센터주관	규장각원형라운지
8월 28일(금)			
09:00-12:00	국립중앙박물관 및 KERIS 견학		
12:00-14:00	중식	KERIS 주관	
14:00-	폐회		

◆ 참고문헌 ◆

- ◆ 김정현. 2003. 『남가주대학교 한국학도서관 : 동아시아학 자료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대한 장서가 자랑』 한국국제교류재단 NEWS LETTER 11(4)
- ◆ “미국 UC 버클리대학 도서관 내 한국관 컬렉션” 중앙일보 2006.11.2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14487](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514487))
- ◆ “미 의회도서관 사서직에 도전해 보라” 한겨레21 2005.11.3. (<http://h21.hani.co.kr/section-021013000/2005/11/021013000200511030583060.html>)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9. 『제1회 해외 한국학 사서워크숍』
- ◆ 이종묵, 김문식, 옥영정 공저. 2009. 『규장각과 책의 문화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토론토 한인 김하나씨 ‘독도’ 구했다” Toronto 중앙일보 2007.7.1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2948](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2948))